

연구보고서 2019-16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소득 및 지출 부문 인지면접

박주언 · 박선희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
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사회통계」 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
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 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
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 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
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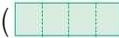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방법	2
1. 조사표 구성	2
2. 참가자	6
3. 수행과정	8
4. 프로빙 지침	9
제3장 연구결과	10
1. 조사표 응답과정	10
2. 조사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17
제4장 종합논의	32
참고문헌	36

요 약

이 연구는 조사 기반으로 구성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에서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득과 지출 부문 항목의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지출 부문에서 행정자료로 완전 대체가 예상되는 조사항목의 응답방식을 변경한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안)(A형, B형)을 평가하였다. A형은 유무를 택일하는 응답항목(① 있음 ② 없음)을 제시하고, B형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초록색 칸 ( 만원)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관점에서 변경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30명의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을 실시하였다. 인지면접은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두 유형의 조사표(안)을 모두 작성한 후 면접원과 심층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과정과 주관적인 인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사표(안) 유형별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상태와 관련 신규 지침의 활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표(안)에 대한 응답부담감,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거부감 같은 주관적인 인식을 탐색하였다.

주요 용어 :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인지면접

제1장 서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재정 및 복지 정책과 연구에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이며,¹⁾ 전국의 약 2만 가구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기존의 가계금융조사(2010~11년)에 복지 영역을 추가하면서 표본을 확대 개편하고 조사명칭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다. 2015년에는 5년 연동표본 설계를 도입하였고,²⁾ 2019년 조사에서는 2종(금융 영역, 복지 영역)으로 분리되었던 조사표를 단일화하였다. 2019년 현재 조사항목은 가구구성, 자산 및 자산운용,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18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19).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소득, 지출 등과 같이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한 가구의 응답거부나 과소·과대 응답 등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8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비소비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및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대체·보완한 결과로 작성하게 되었다(통계청, 2018a). 현재는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득과 지출 부문 항목을 앞으로 현장조사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연계 그룹³⁾에 대한 편향 보정 방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료로 완전 대체 가능한 소득과 지출 부문의 조사항목을 조사 기반으로 구성된 기존 조사표에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에서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득과 지출 부문의 조사항목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항목의 구성을 변경한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안)을 마련한 후,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 방법을 통해 조사표 변경(안)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과정을 이해하고 주관적인 인식을 탐색하였다.

-
- 1)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이나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자녀와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는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조사한다.
 - 2) 5년 연동표본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5년 동안(5회) 조사에 참여하고, 횡단면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표본가구 중 약 20%는 매년 새로운 가구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 3) 2017년 기준 표본가구의 가구원 48,590명 중 44,887명(92%)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가 연계되었고, 연도별 연계율은 92~95% 내외 수준이었다(통계청, 2018b).

인지면접은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응답하면서 떠오르는 사고의 과정을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응답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Willis, 2005). 인지면접은 준비, 수행, 결과 분석의 세 단계로 추진하였다(그림 1).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표를 분석하고, 인지적인 쟁점(issue)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빙(probing) 질문 목록인 프로빙 지침을 작성하였으며,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자발적인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인지면접 수행 과정은 조사표 연구센터 기기를 활용하여 녹화(녹취 포함)하고, 면접원은 프로빙 지침에 따라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탐색하면서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다. 인지면접 완료 후에는 녹취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고, 응답결과와 면담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인지면접 적용 연구 절차: 준비, 수행, 분석

제2장 연구방법

1. 조사표 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 가능한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항목의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A형, B형)의 조사표(안)을 구성⁵⁾하여 인지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표 변경(안)은 2019년 조사에 사용된 기존 조사표와 비교하여 소득과 지출 부문에서 행정자료로 대체 가능한 조사항목의 응답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 4) 프로빙 기법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응답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인지면접 전에 프로빙 질문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표준화된 구조 방식을 기반으로 참가자와의 면담 중 필요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준비 단계에 프로빙 지침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5) 조사표 변경(안)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조사표(안)은 기존 조사표에서 조사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변경을 최소화하여 조사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두 가지 안 중 A형은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자료 미연계 그룹의 편향 보정 방법을 모색한 연구가 시계열 안정성 및 대체 방안 적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액유무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점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새로 구성하였으며(A형 [그림 2], B형 [그림 3]), 자산, 부채 등 다른 부문은 모두 동일하다. 응답방식이 변경된 조사항목은 총 9개로 조사표 23p. 소득 부문 문30⁶⁾의 ‘[4] 공적 이전소득’ 항목 내 6개 세부 항목(① 공적연금, ② 기초연금, ③ 양육수당, ④ 장애수당,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조사표 24p. 지출 부문 문 31의 ‘[1] 세금’ 내 세부 항목 중 ‘① 소득세’ 및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 내 2개 세부 항목(① 국민연금 기여금, ② 기타연금 기여금)이 해당된다.

조사표 변경(안)은 2019년 기존 조사표에서 위와 같은 9개 항목의 응답방식이 변경되었다.⁷⁾ 변경 전 기존 조사표는 문30과 문31에서 조사하는 소득이나 지출이 발생한 가구원 번호를 적고, 해당 가구원 번호 아래에 위치한 흰색 응답 칸(만원)에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표 변경(안) A형(유무질문)은 9개 조사항목에 소득과 지출의 존재 유무를 양자택일하도록 응답항목([1] 있음 [2] 없음)을 제시하였고, B형(음영처리)은 해당 항목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응답 칸은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만원)하여 제시하였다. A형과 B형 모두 9개 변경항목 외에 문 30과 문31에 포함된 다른 조사항목은 기존 조사표와 같이 금액을 기입하는 흰색의 응답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표 변경(안)에는 <표 1>과 같이 조사표 유형에 따라 다른 새로운 응답방식을 안내하는 지침이 추가되었다. 신규 지침에는 응답방식 변경사항과 함께 ‘행정자료 활용 문항’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응답방식을 변경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조사표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A형 [그림 2], B형 [그림 3]), 위치와 내용 측면에서 조사항목 하단에서 용어를 설명하는 기존 지침과는 구분된다.

<표 1> 조사표 변경(안) 유형별(A형, B형) 지침

조사표	위치	지침 내용
A형	23p.	※ [4] 공적 이전소득의 ①~⑥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 [1] 있음 [2] 없음으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p.	※ [1] 세금의 ①과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①~②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 [1] 있음 [2] 없음으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형	23p.	※ [4] 공적 이전소득의 ①~⑥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p.	※ [1] 세금의 ①과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①~②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문30은 조사표 22p.와 23p.에 걸쳐 있고, 두 페이지가 연결된 한 문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23p. 좌측 상단에 ‘계속>’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다.

7) B형에는 9개 항목 외에 기존 조사표와 A형에 제시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조사항목이 삭제되어 있다. B형의 변경된 응답방식 특성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상위 항목인 ‘③ 양육수당’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 속) ※ ④ 공적 이전소득의 ①~⑥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 ① 있음 ② 없음으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가구원 번호	1	2	3	4
④ 공적 이전소득(① + ... + ⑦)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① 있음 ② 없음			
② 기초연금		① 있음 ② 없음			
③ 양육수당(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3-1 귀 가구에서 응답한 '③ 양육수당' 중에는 출산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① 있음 ② 없음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① 있음 ② 없음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① 있음 ② 없음			
⑦ 기타 정부보조금(①~⑥이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⑤ 가구간 이전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⑥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④ 공적 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②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수혜금
- ③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2018년 9월 신설), 입양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보육시설로 입급되는 보육료 등은 제외)
- ④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중)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지원금 (가구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의료급여 제외)
-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 ⑦ 기타 정부보조금: ①~⑥이외 기타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 농어업 정부보조금(쌀·수산물 직불금 등) - 취업지원 관련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 보훈급여금(특히: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수당 및 고연세후유족수당 등)
 - 긴급복지 지원금(생계지원, 연료비지원 등 가구로 직접 지급된 현금지원)
 - 세육연금, 장수수당 등 기타 정부보조금

※ ⑤ 가구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 ⑥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자선단체·노동조합·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IV 소득

V 지출

31 2018년(1. 1.~12. 31.) 가구원의 세금, 공적연금 등 경상이전지출을 연간 총액으로 써넣어 주십시오.

※ ① 세금의 ①과 ②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①~④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 ① 있음 ② 없음으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 조사표 변경(안) A형(유무질문)

<계 속> ※ [4] 공적 이전소득의 ①~⑦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가구원 번호				
[4] 공적 이전소득(① + ... + ⑦)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기초연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 양육수당(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⑦ 기타 정부보조금(①~⑥이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가구간 이전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4] 공적 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발전우체국연금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 재산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수혜금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2018년 9월 신설), 입양아동수당, 저소득·현부모 아동 양육비 등(보육시설로 입급되는 보육료 등은 제외)
-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지원금 (가구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의료급여 제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 기타 정부보조금: ①~⑥ 이외 기타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신채보상금(후임급여, 장제급여 등)
 - 농어업 정부보조금(쌀·수산물 직불금 등)
 - 취업지원 관련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 보조금(교육·국가공공사 등에 지급하는 보조보상금·수당 및 고령채우우의중수당 등)
 - 긴급복지 지원금(생계지원, 연료비지원 등 가구로 직접 지급된 현금지원금)
 -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기타 정부보조금

※ [5] 가구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 [6]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자선단체·노동조합·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 23

V 지 출

31 2018년(1 1 ~12 31) 가구원의 세금, 공적연금 등 경상이전지출을 연가 총액으로 써넣어 주십시오.

※ [1] 세금의 ①과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①~④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출	가구원 번호				
[1] 세금(①+②+③+④)					
① 소득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재산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 자동차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 기타(주민세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①+②+③+④)					
① 국민연금 기여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기타연금 기여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 건강보험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 고용보험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 가구간 이전지출(생활보조금, 경조금 등)		억	만원	억	만원
[4] 비영리단체 이전지출(기부금, 직장노조비 등)		억	만원	억	만원

※ [1] 세금 ● 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연말정산 공제 후 금액) ● 양도소득세, 취득세, 벌금 등 부정기적인 세금 제외

● 재산세: 토지와 주택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포함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 기타: 주민세, 종로·석궁 등 소지허가 등록면허세 등

※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기타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발전우체국연금 기여금

※ [3] 가구간 이전지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에게 보낸 현금 및 현물지출(생활보조금, 경조금, 물품 지원 등)

※ [4]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노조비, 상호회비, 천육회비 등

|| 24

[그림 3] 조사표 변경(안) B형(음영처리)

2. 참가자

인지면접 참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통계청 등)와 생활정보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하였다. 모집광고에는 모집대상(만 20세 이상 성인), 면접일정 및 방법, 사례비 지급, 참가 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고, 참가신청서를 첨부하였다. 참가신청서는 성별, 연령대, 가구원 수,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2018년 한 해 동안 연금 또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가구원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인지면접에서 검토하는 조사표(안)의 변경 항목 중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연금 또는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령 가구의 구성원을 우대하여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인지면접에는 총 30명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 중 남성은 12명, 여성은 18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9명, 40대가 8명, 50대가 7명, 60대 이상이 6명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9명, 대졸 이상이 21명이었고,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5명, 2~3인이 12명, 4인 이상이 13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참가자(30명)는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 변경(안)을 모두 응답하되 순차적으로 해야 하므로, 작성한 순서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A → B형 15명, B → A형 15명). 구체적인 참가자 특성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인지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구분 ¹⁾	계	성별		연령대(만)				교육정도		가구원 수		
		남	여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인	2~3인	4인 이상
A→B형	15	6	9	4	4	4	3	4	11	1	8	6
B→A형	15	6	9	5	4	3	3	5	10	4	4	7
합계	30	12	18	9	8	7	6	9	21	5	12	13

주: 1) 전체 참가자(30명)는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 변경(안)을 모두 응답하되 순차적으로 해야 하므로, 작성한 순서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A → B형 15명, B → A형 15명).

<표 3> 인지면접 참가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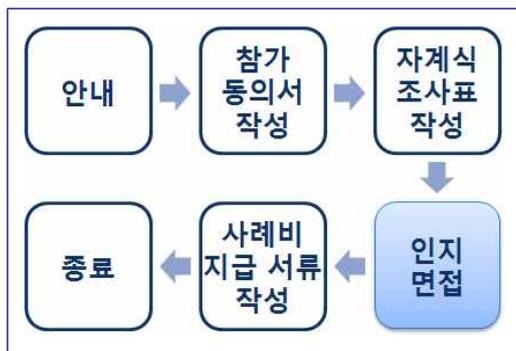
번호	성별	연령(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원 수	조사표 작성 순서	
1	남	56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혼	1	B → A
2	남	6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3	A → B
3	여	48	대학원석사	졸업	유배우	4	B → A

번호	성별	연령(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원 수	조사표 작성 순서
4	여	42	중학교	중퇴	유배우	4	A → B
5	여	45	고등학교	졸업	미혼	3	A → B
6	여	37	대학(교)(3년제 이하)	졸업	유배우	5	A → B
7	여	37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4	A → B
8	남	62	고등학교	졸업	이혼	1	B → A
9	여	5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4	B → A
10	여	39	대학(교)(3년제 이하)	졸업	유배우	4	B → A
11	여	47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4	B → A
12	여	48	고등학교	졸업	이혼	1	B → A
13	남	5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3	A → B
14	남	41	대학(교)(3년제 이하)	졸업	미혼	1	A → B
15	여	51	대학(교)(3년제 이하)	졸업	사별	2	A → B
16	여	51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유배우	4	A → B
17	남	5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혼	2	A → B
18	여	37	대학원석사	수료	미혼	3	B → A
19	여	2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미혼	4	B → A
20	남	33	대학원석사	중퇴	유배우	4	A → B
21	남	64	대학원박사 이상	졸업	유배우	2	B → A
22	남	40	대학원 석사	수료	미혼	3	B → A
23	남	20	대학교(4년제 이상)	휴학	미혼	4	B → A
24	여	69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3	A → B
25	여	62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2	B → A
26	여	18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미혼	4	A → B
27	남	37	대학원박사 이상	수료	유배우	5	B → A
28	여	48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혼	2	A → B
29	여	57	대학원석사	졸업	미혼	1	B → A
30	남	68	대학원박사 이상	졸업	유배우	2	A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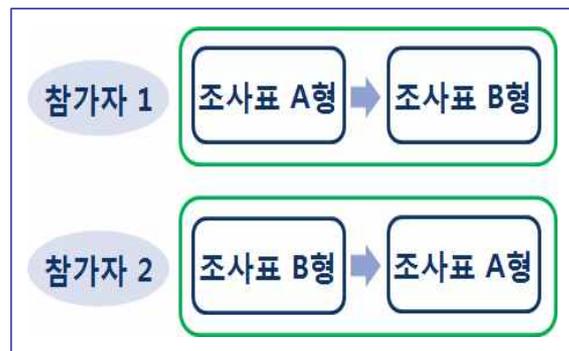
3. 수행과정

인지면접은 2019년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통계개발원 조사표 연구센터에서 [그림 4]와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다. 참가자가 조사표 연구센터에 도착하면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참가동의서에는 인지면접 진행과정이 녹화되고,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진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참가자는 자기기입식으로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 변경(안)(A형, B형)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였다. A형 또는 B형 중 하나를 먼저 제시하여 작성을 마친 후, 다른 유형의 조사표를 제공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반복 노출에 따른 순서효과(order effect)⁸⁾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표 제시 순서를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다. 다시 말해,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A형을 먼저 제시하고(15명), 나머지 참가자에게는 B형을 먼저 제시했다(15명)([그림 5]). 첫 번째로 제시한 조사표는 소득과 지출 부문의 변경사항을 포함한 조사표 전체를 작성하고, 두 번째 조사표는 변경된 조사항목이 포함된 페이지(23p., 24p.)만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⁹⁾



[그림 4] 인지면접 수행과정



[그림 5] 조사표 제시 순서 예시

조사표 작성이 끝난 후 면접원과 참가자와 일대일로 면담하는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인지면접은 심층적으로 캐어묻는 프로빙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면접원은 사전에 마

8) 순서효과는 자극 제시 순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향으로, 유사한 항목을 한 번 더 제시할 경우 두 번째 제시된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두 번째 제시된 항목에서 달라진 점만 두드러지게 인지할 수 있다(박선희·박주연, 2018).

9) 첫 번째 조사표를 작성하고 평가서를 통해 이에 대한 응답부담감을 7점 척도로 평가한 후, 두 번째 조사표와 응답부담감 평가서를 제시하였다. 응답부담감 평가 질문은 3절에서 응답부담감에 관한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련한 프로빙 지침을 토대로 필요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응답내용과 응답과정을 상세히 묻고 답변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때 첫 번째 작성한 조사표에 관한 프로빙을 완료한 후 두 번째 조사표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에게 사례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인지면접 수행과정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조사표 연구센터 기기를 활용하여 녹화(녹취 포함)되었다.

4. 프로빙 지침

프로빙 지침은 인지적인 쟁점이 예상되는 지점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이다. 인지면접에 사용한 프로빙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프로빙 지침은 조사표 변경(안)(A형, B형) 검토에 부합하도록 소득과 지출 부문 변경 항목에 관한 응답과정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다. 변경 항목의 응답내용과 응답자의 실제 상황을 비교하고, 응답방식과 지침의 이해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변경 항목을 응답하면서 느낀 응답부담감,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거부감 같은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 인지면접 프로빙 지침

대상	주제		세부 내용
첫 번째 조사표	가구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원 누락 또는 제외 가구원 포함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조사표	응답 과정	응답방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항목(9개) 응답내용과 응답자 실제 상황 비교 응답방식 이해상태
		지침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읽기 여부 지침 이해상태 : 1. 응답방식 안내, 2.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
	주관적인 인식	응답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안) 응답부담감(7점 척도) 평가 결과 및 이유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응답 중 전반적인 생각 응답방식 변경사항과 동 조사표 이전 부분 간 차이 인식 여부 및 이유
	거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항목(9개) 행정자료 활용한 통계 작성에 대한 거부감(7점 척도) 평가 결과 및 이유 	
두 번째 조사표	기존 조사표와 비교한 응답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전 기존 조사표와 변경 후 A형, B형 조사표 간 상대적인 응답부담감 순위

첫 번째로 작성한 조사표에 대해 프로빙한 후 두 번째 조사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빙 지침에서 응답과정과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질문은 조사표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표 4>에는 유형 구분 없이 한 번만 제시하였다. 도입부의 기본적인 가구원 구성 현황은 첫 번째 조사표에서 확인하고, 마지막의 기존 조사표와 두 유형의 조사표 변경(안)(A형, B형) 간 응답부담감 비교는 두 번째 조사표의 프로빙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하였다.

제3장 연구결과

조사표 변경(안)(A형, B형)은 2019년 기존 조사표에서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 가능한 소득과 지출 부문 9개 항목¹⁰⁾의 응답방식을 각각 다른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9개의 변경항목이 포함된 문30과 문31의 다른 조사항목은 기존 조사표와 같이 금액을 기입하는 흰색의 응답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 문항에 두 가지 응답방식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¹¹⁾ 인지면접에서는 두 가지 조사표(안)(A형, B형)에 관한 참가자의 응답과정과 주관적인 인식을 검토하였다.

1. 조사표 응답과정¹²⁾

조사표(안) 유형(A형, B형)에 따라 응답방식이 변경된 항목의 응답내용과 참가자의 실제 상황을 비교하여 새로운 응답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응답과정에서 변경된 응답방식과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신규 지침을 읽었는지 확인하여, 지침 인지와 응답방식 이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행정자료를 활용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탐색하였다. 응답방식 이해상태와 지침 읽기 여부 그리고 상호 관련성은 응답방식이 상이하므로 조사표 변경(안) 유형(A형, B형)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이해 현황은 조사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는데, 응답방식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적인 원리에 대해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조사표 변경(안)의 응답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10) 조사표 23p. 소득 부문 문30의 '4 공적 이전소득' 항목 내 6개 세부 항목(① 공적연금, ② 기초연금, ③ 양육수당, ④ 장애수당,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조사표 24p. 지출 부문 문31의 '1 세금' 내 세부 항목 중 '① 소득세' 및 '2 공적연금·사회보험료' 내 2개 세부 항목(① 국민연금 기여금, ② 기타연금 기여금)

11) 조사표 변경(안) A형과 B형은 각각 2절의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12) 응답과정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조사표 23p. 문30과 24p. 문31 중 먼저 제시되어 있고 9개 변경 항목 중 6개 항목이 배치된 23p. 문30에 대한 응답방식 이해상태와 지침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표 5> 응답방식 이해 및 지침 인지 현황

참가자	유형 ¹⁾	응답방식 이해상태 ²⁾	비고	지침 인지 ²⁾		유형 ¹⁾	응답방식 이해상태 ²⁾	지침 인지 ²⁾	
				읽기	행정자료 활용 이해 ³⁾			읽기	행정자료 활용 이해 ³⁾
2	A	택일		읽음	-	B/	기입	읽음	
4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	B/	기입	안 읽음	
5	A	택일		읽음	미이해	B/	기입	안 읽음	
6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미이해	B/	선택	읽음	
7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미이해	B/	기입	읽음	
13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미이해	B/	미기입	읽음	
14	A	-	23p. 전체 누락	안 읽음	미이해	B/	선택	읽음	
15	A	택일		안 읽음	미이해	B/	기입	안 읽음	
16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미이해	B/	미기입	읽음	
17	A	택일		읽음	미이해	B/	미기입	읽음	
20	A	택일	일부 누락	안 읽음	미이해	B/	기입	안 읽음	
24	A	「있음」만 표시		읽음	미이해	B/	선택	읽음	
26	A	택일		읽음	미이해	B/	선택	읽음	
28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미이해	B/	선택	읽음	
30	A	택일	일부 누락	안 읽음	미이해	B/	기입	안 읽음	
1	A/	택일	일부 누락	안 읽음		B	기입	안 읽음	-
3	A/	택일		읽음		B	미기입	읽음	-
8	A/	「있음」만 표시		읽음		B	기입	읽음	미이해
9	A/	택일		안 읽음		B	미기입	안 읽음	미이해
10	A/	택일	일부 누락	안 읽음		B	기입	안 읽음	미이해
11	A/	택일		안 읽음		B	미기입	읽음	미이해
12	A/	택일		안 읽음		B	선택	읽음	미이해
18	A/	「있음」만 표시		안 읽음		B	선택	읽음	미이해
19	A/	택일		안 읽음		B	선택	읽음	미이해
21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B	미기입	읽음	이해
22	A/	택일		읽음		B	미기입	읽음	미이해
23	A/	택일		읽음		B	선택	읽음	미이해
25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B	선택	읽음	미이해
27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B	선택	읽음	미이해
29	A/	택일	일부 누락	읽음		B	기입	읽음	미이해

주: 1) 첫 번째 작성한 조사표와 구분하기 위해 두 번째 작성한 조사표 유형은 ‘/’ 기호를 추가하였다.
 2) 응답과정은 조사표 23p. 문30의 응답방식 이해상태와 지침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3) 지침에 제시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에 대한 이해 여부는 첫 번째로 작성한 조사표 유형에서만 프 로빙하였다. 또한 인지면접 진행 중 5번 참가자부터 프로빙이 추가되어 총 26명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가. 조사표 변경(안) A형(유무질문)

A형 조사표(안)은 문30과 문31 내 9개 조사항목에 소득과 지출의 존재 유무를 양자택일하는 응답항목(① 있음 ② 없음)과 새로운 응답방식을 설명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A형 조사표(안)의 23p. 문30과 24p. 문31 상단에 제시된 지침은 <표 6>과 같다.

<표 6> 조사표 변경(안) A형 지침

조사표	위치	지침 내용
A형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 공적 이전소득의 ①~⑥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 ① 있음 ② 없음으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세금의 ①과 ②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①~②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 ① 있음 ② 없음으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형 조사표(안)에 대한 인지면접 참가자의 응답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가자 대다수가 「① 있음», 「② 없음」 응답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는 방식(=양자택일)임을 이해하고 응답했다(택일 방식 이해: 26/30명). 해당 참가자 중 일부 항목은 「① 있음」 또는 「② 없음」에 표시하는 것을 누락한 사례가 있었는데(14/26명)¹³⁾, 단순 실수이거나 누락한 항목의 의미를 몰라서 존재 유무를 판단하지 못한 것 등이 이유로 언급되었다. 한편 「① 있음」 항목에만 표시하고, 해당 가구원에 대해 조사표 동일 페이지 내 다른 조사항목의 「② 없음」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3/30명).

응답과정에서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신규 지침을 읽은 참가자는 19명이었다(19/30명). 지침 읽기 여부와 응답방식 이해상태를 연관해서 살펴본 결과, 지침을 읽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과 지출 유무를 택일하는 응답방식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나. 조사표 변경(안) B형(음영처리)

B형 조사표(안)은 문30과 문31 내 9개 조사항목에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된 응답 칸( 만원)과 해당 항목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응답방식을 안내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B형 조사표(안)의 23p. 문30과 24p. 문31 상단에 제시된 지침은 <표 7>과 같다.

13) 일부 항목 응답누락자 수를 집계할 때, A형 조사표(안) 변경 항목의 양자택일 응답방식과 동일한 구성의 기존 ‘출산장려금’ 항목에 대한 누락은 포함하지 않았다. ‘출산장려금’ 항목은 전체 참가자 30명 중 23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이 경우 모두 「② 아니요」에 해당하였다. 응답자는 총 7명으로 「① 예」 응답이 2명, 「② 아니요」 응답이 5명이었다.

<표 7> 조사표 변경(안) B형 지침

조사표	위치	지침 내용
B형	23p.	▪ ※ ④ 공적 이전소득의 ①~⑥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p.	▪ ※ ① 세금의 ①과 ②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①~②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형 조사표(안)에 대한 인지면접 참가자의 응답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록색 음영 칸에는 소득이나 지출 금액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미기입)임을 이해 못한 참가자 수가 응답방식을 이해하고 기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미기입 방식 이해: 8/30명, 이해 못함: 22/30명). B형 조사표(안)의 초록색 칸 응답방식을 이해 못한 참가자의 응답 행동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초록색 칸에 기존의 흰색 칸과 구분 없이 필수적으로 금액을 기입하거나(11/30명), 초록색 칸은 응답자가 기입 여부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응답했다(11/30명).¹⁴⁾ 후자와 같이 선택적 기입 방식으로 이해한 참가자 11명 중 10명¹⁵⁾은 실제로 초록색 칸 일부에 금액을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6: 선택적 기입으로 이해 후 일부 기입)

참가자 - 양육수당도 원래 안 적을까 하다가...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적으려다가 너무 적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기억이 나니깐 80만 원 적은 거예요.

(참가자 27: 선택적 기입으로 이해 후 일부 기입)

참가자 - 그게 일단은 응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서, 선택적으로 적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응답과정에서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신규 지침을 읽은 참가자는 22명이었다(22/30명). 지침 읽기 여부와 응답방식 이해상태를 연관해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응답 중 지침을 읽어도 초록색 칸에 필수적으로 기입(4/22명)하거나 응답자가 기입 여부를 선택(11/22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참가자 수의 합(15/22명)이 기입이 불필요한 방식임을 이해한 경우(7/22명)보다 많았다.

14) B형 조사표(안)에서 초록색 칸에 금액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기입한 것은 응답오류라기보다 초록색 칸 항목을 설계할 때 의도한 미기입 응답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5) 참가자 6, 12, 14, 18, 19, 23, 24, 25, 27, 28

(참가자 7: 지침 읽고도 필수 기입으로 이해)
 참가자 - 일관성이 이거보다는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거 같아서 조금 더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참가자 29: 지침 읽고도 필수 기입으로 이해)
 참가자 - 별 생각 없었는데. 왜냐면 여기 장려금, 장애수당 이런 거를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저는 적을 게 없으니까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표 8> B형 지침 인지와 응답방식 이해

지침 인지	응답방식 이해상태	세분화	참가자 수
		미기입	
읽음 (22/30명)	미이해	기입	4/22명
		선택	11/22명
안 읽음 (8/30명)	이해	미기입	1/8명
	미이해	기입	7/8명

응답 중 지침을 읽지 않은 8명 중 7명은 금액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지침을 참조하지 않고 초록색 칸만 보고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참가자 9)

< 요약 >

- ▶ (조사표 변경(안) A형) 참가자 대다수가 「1 있음」, 「2 없음」 항목 중 택일하는 방식을 이해했고, 지침을 읽지 않아도 응답방식을 이해하는데 문제없음
- ▶ (조사표 변경(안) B형) 초록색 음영 칸에 기입하지 않는 방식을 이해 못하고 다른 방식(필수 기입, 선택 기입)으로 응답한 참가자 수가 더 많았으며, 지침을 읽어도 응답방식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 높음

다. A형, B형 공통사항: 행정자료 활용 이해

조사표 변경(안)에 새로 추가된 지침에는 유형에 따른 상이한 응답방식에 대한 안내와 함께 ‘행정자료 활용 문항’이라는 문구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응답방식을 변경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¹⁶⁾ 인지면접에서는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탐색하였다. 프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접원과의 면담 전 순차적으로 작성한 두 유형의 조사표 중 첫 번째 조사표 응답 시 지침의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응답 중 지침을 읽지 않은 참가자는 면담 과정에서 읽게 한 후 이해상태를 파악하였다.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이해 현황은 첫 번째 작성한

16) 조사표(안)에 제시된 지침의 전체 문장은 A형은 <표 6>, B형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표에 대한 프로빙 과정에서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사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였는데, 유형별 응답방식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적인 원리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이다.

인지면접 결과, 조사표(안) 유형(A형, B형)에 관계없이 참가자 대다수가 지침에 제시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를 읽고 이해한 참가자는 한 명에 불과하였다(1/26명¹⁷⁾.(참가자 21)

(참가자 21: 응답 중 지침 읽고 행정자료 활용 이해)

참가자 - 통계청에서 행자부하고 내부 연결되어 갖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다 알아서 이렇게 놓으면 다 나오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느꼈어요. 행자부하고 통계청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해를 했어요.

응답 중 지침을 읽지 않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 면접원의 안내로 지침을 읽은 6명 가운데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의 의미를 이해한 참가자도 한 명뿐이었다.(참가자 9)

(참가자 9: 면담 중 지침 읽고 행정자료 활용 이해)

참가자 - 전산상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자료, 그야 말로 행정자료 잡혀 있는 걸로 활용이 되지 않아요.

면접원 - 활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참가자 - 갖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위와 같은 2명을 제외하면 응답 중 또는 면담 과정에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24/26명), 어떻게 이해했는지 프로빙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행정자료 활용 미이해자(24명)의 인식

참가자 수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 이해	비고
20/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가 행정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문항 - 아울러 해당 항목의 중요성 강조, 응답 필요성 촉진 (참가자 7, 26) 	
4/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가 부수적 또는 내부적인 참고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항 	첫 번째 작성 조사표(안) B형

17) 인지면접 진행 중 5번 참가자부터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상태를 탐색하는 프로빙이 추가되어 총 26명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참가자 대다수는 조사결과가 행정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문항으로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명). 아울러 이 중 2명은 조사표에 처음 등장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가 해당 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응답 필요성을 촉진한다는 언급을 추가하였다.^(참가자 7, 26)

(참가자 7: 행정자료 활용 미이해 → 행정에 유용한 문항, 항목 중요성 및 응답 필요 강조)

참가자 - 여기에만 이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만큼은 ‘여기 이거 말고 다른 행정자료에 사용되는 문항인가?’라는 의문점도 가졌어요. 여기에만 이 문구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중략) 또 다른 활용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참가자 26: 행정자료 활용 미이해 → 행정에 유용한 문항, 항목 중요성 및 응답 필요 촉진)

참가자 - 다른 문항 이런데 22쪽 같은 경우는 이런 문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3쪽 하고 24쪽에는 ‘행정자료 활용 문항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확히 통계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한편 참가자 중 일부는 조사결과가 부수적 또는 내부적인 참고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항이라 생각하였다(4/24명).^(참가자 18, 22, 23, 27)18) 해당 참가자들은 지침에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에 이어지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의미를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자 22: 행정자료 활용 미이해 → 부수 또는 내부 참고자료 문항)

참가자 - 이 설문에서 조사하는 거 하고 ‘크게 상관있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중략) 설문지를 만드신 분이 이 전체 가계금융복지조사표 안에서 여기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저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참가자 23: 행정자료 활용 미이해 → 부수 또는 내부 참고자료 문항)

참가자 -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써져 있는 흐름이나 추세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금액을 이렇게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는 않는다. 이 정도 네.

18) 해당 참가자 4명은 모두 B형 조사표(안)을 첫 번째로 작성한 사례로, 따라서 B형 조사표(안)의 지침에 포함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에 대한 이해상태를 검토한 결과이다.

< 요약 >

▶ **(행정자료 활용 이해)** 조사표(안) 유형(A형, B형)에 관계없이 참가자 대다수가 지침에 제시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의 의미를 이해 못함
 - 해당 문구에 대해 조사결과가 행정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문항으로 잘못 이해한 사례 많음

2. 조사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가. 응답부담감

인지면접에서는 조사표 변경(안)에 대한 응답부담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조사표 유형 간 상대적인 응답부담감으로, 면접원과 면담 전 순차적으로 작성한 두 유형의 조사표 변경(안)(A형, B형) 뿐만 아니라 2019년 조사에 사용한 변경 전 기존 조사표를 추가로 제시하여 세 가지 조사표의 응답부담감을 비교하고 순위를 도출하였다. 응답부담감이 가장 높은 경우에 1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세 가지 조사표의 응답부담감을 비교하기 전, 조사표 변경(안) 작성 시 응답방식을 이해 못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참가자에게 각 조사표의 응답방식을 안내해 주었다.

응답부담감을 검토한 또 다른 방법은 절대적인 응답부담감을 평가한 것이다. 면담 전 두 유형(A형, B형)의 조사표(안)을 작성할 때 첫 번째 조사표를 작성하고 평가서를 통해 이에 대한 응답부담감을 7점 척도로 평가한 후, 두 번째 조사표와 동일한 형식의 응답부담감 평가서를 제시하여 산출하였다.

1) 상대적인 응답부담감

인지면접에서 조사표 변경(안) A형, B형과 변경 전 기존 조사표의 상대적인 응답부담감 순위를 검토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참가자 대다수가 두 유형의 조사표(안)(A형, B형)과 비교하여 기존 조사표를 응답부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1순위로 응답하였다(기존 1순위: 27/30명).

<표 10> 상대적인 응답부담감

응답부담감			참가자 수
1순위	2순위	3순위	
기존	B형	A형	21명
기존	A형	B형	6명
B형	기존	A형	2명
B형	A형	기존	1명

- 기존(기입) > B형(음영) > A형(유무) (21/30명)

응답부담감이 가장 높은 1순위로는 기존 조사표를 선택하고, 2순위는 B형, 3순위는

A형 순으로 응답한 사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B형, A형 순서로 응답부담감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는 각각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1순위인 기존 조사표는 모든 항목에 흰색 응답 칸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소득이나 지출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금액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지목된 B형 조사표(안)은 첫째, 초록색 음영 칸을 통해 해당 항목은 응답하지 않아도 됨을 직관적으로 이해 못하고 지침을 읽고 응답방식을 인지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했다. 둘째, 초록색 음영 칸은 흰색과 대비되는 ‘초록색’ 그리고 단위가 명시된 네모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액을 기입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인 A형 조사표(안)은 첫째, 지침을 보지 않고 제시된 응답항목(① 있음, ② 없음)만 보아도 응답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구체적인 금액 회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비교적 쉽고 간단명료한 유무 응답에 한정되어서 용이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응답부담감: 기존(기입) > B형(음영) > A형(유무) 순위 이유

순위	유형	이유
1순위	기존(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함
2순위	B형(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음영 칸을 통해 응답 불필요를 직관적으로 이해 못하고 지침을 읽고 인지해내야 하는 부담감 존재 초록색 음영 칸은 흰색과 대비되는 ‘초록색’ 그리고 단위가 명시된 네모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액 기입 압박감 느낌
3순위	A형(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을 보지 않아도 응답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됨 금액과 비교해 쉽고 간단명료한 유무만 생각하고 응답하면 됨

(참가자 3: 기존(기입) > B형(음영) > A형(유무))

면접원 - 어떤 점에서 2순위와 3순위가 구분이 되세요?

참가자 - 이거(B형)하고 이거(A형)는 제가 똑같이 부담이 그냥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B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힌 빈 칸이 있으니까 그냥 퍽! 이런 느낌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손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서 그럴까? 하고 하지만...

면접원 - 응답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칸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참가자 - 네. 이거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가자 7: 기존(기입) > B형(음영) > A형(유무))

참가자 - 있음, 없음이 단순하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데 이거는 웬지 굳이 기재할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봐야 되고, 또 굳이 기재할 안 해도 될 거면 거기 설문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참가자 18: 기존(기입) > B형(음영) > A형(유무))

참가자 - 애(B형)는 다른 의미의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색깔이 돼 있어도 색깔의 의미 차이를 한 번 더 읽으면서 시간이 걸리고, 색깔이 연속되지 않고 1에 1, 2에 1, 2만. 구분지어서 머릿속에 분류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중략) 인지를 먼저 하고 판단을 하고 쓰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부담스럽고, 애(기존)는 빈 칸이 많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응답 자료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어서 쓸 거는 많고 시간은 걸리고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실질적인 부담감. 애(B형)는 이 안에서 구분해 내면서 내가 골라야 되지만 이 페이지가 구분해 내는 게 까다롭게 느껴져요. (중략) 애(A형)는 필수 선택 사항 자체가 없고 오히려 항목이 많아지는 거 같지만 일단 있다, 없다만 선택을 쪽 쪽 쪽.

(참가자 30: 기존(기입) > B형(음영) > A형(유무))

참가자 - 이게(기존) 제일 높죠. (중략) 요거(B형) 색깔 있는 것도 안 쓰는 건데 색깔이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중략) 요거(A형)는 이렇게 표시하니까 쉬운데, 이거(B형)는 안 쓴다고 해도 빈 칸으로 남기는 건 조금. 이게(A형) 좀 더 편할 거 같은데요.

면접원 - 두 개가 크게 우열을 가리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A형)이 좀 더 편할 거 같다 생각이 드시고요?

참가자 - 설문지가 객관식이면 응답자가 표시하기 좋잖아요. 주관식은 조금 생각해야 돼서.

면접원 - 제일 오른쪽 거(B형) 초록색 칸 같은 경우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빈칸으로 놔두는 게 좀 찝찝함이 남을 거 같다 생각이 드시고요?

참가자 - 네.

▪ 기존(기입) > A형(유무) > B형(음영) (6/30명)

응답부담감이 가장 높은 1순위로는 기존 조사표를 선택하고, 2순위는 A형, 3순위는 B형으로 응답한 사례도 확인되었다.^(참가자 1, 6, 8, 13, 17, 22) A형 조사표(안)이 2순위로 언급되었는데, A형은 해당하는 응답항목(① 있음, ② 없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입이 필수적인 기존 조사표와 비교하면 부담감이 낮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B형에 비해서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6: 기존(기입) > A형(유무) > B형(음영))

면접원 -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순위가 차이가 나시는 건가요?

참가자 - 솔직히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부담이 없는 거 같아요. 있음, 없음으로 체크를 해도

간편해서 좋기는 해요.

(참가자 22: 기존(기입) > A형(유무) > B형(음영))

참가자 - 써야 하는 부담감이 제일 많은 거 순으로.

▪ 기타

기타 의견으로 응답부담감이 가장 높은 1순위로 B형 조사표(안)을 선정한 사례가 있다(3/30명). 이 중 2명은 B형 다음으로 기존, A형 순으로 응답부담감 순위를 부여하였다(B형(음영) > 기존 > A형(유무): 2/30명).^(참가자 9, 29) 한 참가자는 B형은 초록색 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읽고 행정자료 활용 문항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거부감으로 인해 부담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A형은 지침을 참조하지 않아도 응답방식이 이해되므로 지침에 제시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를 인식 못할 가능성이 커서 부담감이 낮게 나타났다.^(참가자 9) 다른 참가자는 B형은 초록색 칸 자체가 시각적 부담감과 특별한 의미가 내포된 것과 같은 선입견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1순위로 선정하였다.^(참가자 29)

한편 한 참가자는 B형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A형, 3순위는 기존 조사표를 선택하였다. B형은 초록색 칸이 부각되어 주의를 기울여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나 비워두기 꺼려지며, A형과 기존 형식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나 익숙함을 이유로 기존 형식의 응답부담감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참가자 12)

2) 절대적인 응답부담감

두 유형의 조사표(안)(A형, B형)을 작성할 때 첫 번째 조사표를 작성하고 평가서를 통해 응답부담감을 7점 척도로 평가한 후, 두 번째 조사표와 동일한 형식의 응답부담감 평가서를 제시하였다. 응답부담감을 평가하는 질문은 ‘조사표 23p.와 24p.를 응답할 때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셨습니까?’이고, 7점 척도는 0에서 6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구성되었으며 양극단의 0에는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6에는 ‘부담감을 매우 느꼈다’는 문구가 제시되었다.

7점 척도로 평가한 응답부담감은 두 유형의 조사표(안) 모두 평균 1.8로 낮게 나타났다(A형: 1.8, B형: 1.8)(<표 12>). 조사표 작성 순서를 고려하여도 부담감 평균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A형: 1.7, A/형: 1.8 // B형: 1.8, B/형: 1.7).

<표 12> 조사표(안)(A형, B형) 응답부담감

	A형		B형	
	A	A/	B	B/
평균	1.7	1.8	1.8	1.7
	1.8		1.8	

주: 1) 첫 번째 작성한 조사표와 구분하기 위해 두 번째 작성한 조사표 유형은 ‘/’ 기호를 추가하였다.

일부 참가자는 응답부담감 질문에 4점 이상을 응답하였다(4점 이상 A형: 4/30명, B형: 5/30명). 조사표(안) 유형에 따라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A형은 해당사항이 있어서^{(참가자 1)¹⁹⁾}, 개인정보 노출 우려^(참가자 2), 세금 등 금액 모름^{(참가자 7)²⁰⁾}, 가정형편상 해당사항이 없어서^(참가자 9)를 언급하였다. B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참가자 2), 가정형편상 해당사항이 없어서^(참가자 9), 지참보고 기입 불필요 인식 전 정확한 금액 회상 필요^(참가자 16), 몰라서 응답 칸 비워둔 것 부담^(참가자 19, 26)을 이유로 들었다.

< 요약 >

- ▶ (상대적인 응답부담감) 참가자 대다수는 두 가지 변경(안) A형, B형과 비교하여 2019년 조사에 사용한 기존 조사표의 응답부담감을 가장 높게 평가함
- 1순위가 기존 조사표이고, 2순위 B형, 3순위 A형인 경우가 가장 많음
- ▶ (절대적인 응답부담감) A형, B형 조사표(안) 모두 응답부담감 평균 낮음

나.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

조사표 변경(안)의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조사표 이전 부분과 비교하여 차이를 느끼는지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일관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조사표 변경(안)(A형, B형) 각 응답방식에 대해 응답과정에서 가진 전반적인 생각을 프로빙하였다. 다른 하나는 변경(안)(A형, B형) 응답방식을 동 조사표 이전 부분과 비교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다르다’고 인식하는지 면담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였다.²¹⁾ 이러한 프로빙 질문은 조사표(안) 작성 시 응답방식을 이해 못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참가자에게 각 조사표(안)의 변경된 응답 방식에 대해 안내한 후 제시되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일관성 인식을 검토한 결과는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1)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인지면접 결과, 참가자 대다수는 응답과정에서 A형과 B형 조사표(안)의 변경된 응답

19) 첫 번째로 B형을 응답할 때는 소득이나 지출 발생 항목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로 A형을 작성하면서 해당사항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부담감이 상승하였다.

20) 첫 번째로 A형을 작성하면서 세금 등 금액을 모르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나, 두 번째로 B형을 작성할 때는 모르는 상태는 동일하나 처음이 아니어서 부담이 감소하였다.

21) 인지면접 진행 중 2번 참가자부터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여부를 탐색하는 프로빙이 추가되어 총 29명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방식에 대해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조사방식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A형 조사표(안)에 대해서는 유무를 응답항목(① 있음, ② 없음)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기 쉽다는 의견이 많이 언급되었다.

(참가자 9: A형 응답방식 변경사항은 조사방식의 일환)

면접원 - 여기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있음, 없음에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처음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가자 - 그냥 좀 이거는 그냥 있음, 없음으로 하네, 그렇게.

면접원 - 그냥 조사의 일부이구나.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조사하네.

참가자 - 어, 예. 맞아요. 조사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쪽 이어오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유형이 다르네 이런 거는 생각할 시간은 없었던 거 같아요.

(참가자 22: B형 응답방식 변경사항은 조사방식의 일환)

면접원 -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공적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기여금 이런 항목들에 초록색 칸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드신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참가자 - 처음부터 초록색 항목들을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 있어서 자세히 읽지도 않았습시다.

면접원 - 여기는 그냥 응답하지 않아도 되네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거구요?

참가자 - 네.

이 밖에 A형과 B형 조사표(안) 각각에 대해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A형에 대해 「① 있음」, 「② 없음」 택일 항목과 일반적인 금액 기입 칸이 혼재되어 있는 점을 의아해 하거나^(참가자 7), 유무만 조사한 결과에 대해 유용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했다.^(참가자 19, 20)22) 한 참가자는 A형은 금액 기입 방식과 비교해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참가자 22) B형에 대해 일부 참가자는 초록색 칸은 흰색 칸과 대비되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참가자 10, 12, 19, 21, 23, 25)

2) 응답방식 변경사항과 조사표 이전 부분 간 차이 인식

조사표 이전 부분과 비교하여 A형과 B형 응답방식 변경사항이 일관성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참가자 수가 ‘다르다’는 경우보다 많았다(‘다르지 않다’ 인식 A형: 22/29명, B형: 19/29명).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참가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각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방식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아울러 해당 참

22) 해당 참가자들이 의문을 가진 것은 유무조사 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금액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문항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파생된 결과로 추정된다.

가자 중 A형에 대해 조사표 이전 부분에도 유무(① 있음, ② 없음)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13, 17, 23)

(참가자 13: A형 '다르지 않다' 인식)

면접원 - 앞에서부터 쪽 해오시다가 23, 24페이지에서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을 보셨을 때는 뭐 이렇게 생똥맞다는 느낌은 없으셨나요?

참가자 - 그런 거는 안 받았어요. 이거 지금 보면 물론 지금 이 앞 쪽은, 잠깐만요, 여기도 있음 없음 있잖아요, 이 앞쪽도. 18페이지에도 있고. 여기도 있음 없음 다 있고요. 신용카드 뭐 외상 할부. 이것도 있음 없음 있어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참가자18: B형 '다르지 않다' 인식)

면접원 -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는 초록색 칸이 제시되는 항목들은 응답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 보고 조사표의 이전 부분들 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셨었나요?

참가자 - 아니요.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답하지 않아도 완결된 통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면접원 - 조사의 의도라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참가자 - 예, 아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이 분들이 쓰신다는 거구나.

면접원 - 조사자의 의도가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참가자 - 예, 맞아요.

A형과 B형 조사표(안)의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각각 동 조사표의 이전 부분과 비교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다르다'고 인식한 참가자는 그 차이에 의문을 가지는지 여부로 다시 구분되었다. 변경(안) 유형별로 동 조사표 이전 부분과 차이를 인식하나 의문점은 없는 사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다르다' 인식 A형: 7/29명 → 의문 없음 4/7명, B형: 10/29명 → 의문 없음 6/10명). A형은 조사표 이전 부분에 제시된 바 있는 유무 선택 방식이나 후속 질문 없이 종결되는 점이 다르다고 하거나^(참가자 16), 앞부분의 금액이나 횟수를 기입하는 방식과 조사하는 형태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언급하였다.^(참가자 18, 27) 한 참가자는 A형의 응답방식 변경사항은 보다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응답할 수 있게 하므로 차이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참가자 26) B형은 응답하지 않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 점에서 조사표 앞 부분과 '다르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16, 17, 20, 22, 23, 30)

응답방식 변경사항과 조사표 이전 부분 간 차이를 인식한 참가자 중 일부는 의문을 표현하였다('다르다' 인식 A형: 7/29명 → 의문 3/7명, B형: 10/29명 → 의문 4/10명). A형에 대해 「① 있음」, 「② 없음」 택일 항목과 일반적인 금액 기입 칸이 혼재되어 있는 점에 의아해하고^(참가자 7²³), 유무만 조사한 결과에 대해 유용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했으며,^(참가자 19) 간이 조사로 변환되어 조사결과가 참고자료에 머문다고 느끼는 사례가 있었다.^(참가자 20²⁴)

B형은 기입하지 않는 방식에 주목하여 초록색 칸을 조사표에 굳이 제시한 것에 의문을 가지거나^(참가자 13, 15), 기입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조사 필요성 측면에서 우려하였다.^(참가자 25, 29)25)

(참가자 15: B형 미기입 칸 제시 의문)

참가자 - 굳이 대답 안 해도 될 항목은, 똑같은 생각이예요. 그럼 뭐 하러 만들었지?

(참가자 29: B형 미기입 방식 우려)

참가자 - 생활비, 돈, 이런 문제에 관한 것들을 쪽 물어 왔잖아요. 돈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23, 24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문구는 맞지 않아요. (중략) 이거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요약 >

- ▶ (응답 중 전반적인 생각) 참가자 대다수는 응답 중 A형과 B형 조사표(안)의 변경된 응답방식에 대해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조사방식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
- ▶ (응답방식 차이 인식) 조사표 이전 부분과 비교하여 A형과 B형 응답방식 변경사항이 일관성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참가자 수가 '다르다'는 경우보다 많음
- '다르다'고 인식한 참가자 중 일부는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의문을 포함

-
- 23) 해당 참가자는 A형의 응답방식 혼재에 의아해 하였으나, 유무 선택 방식이 응답하기 쉽다고 하였다.
 - 24) A형의 경우 응답 중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탐색한 결과 의문을 가졌던 참가자가 이후 구체적인 차이 인식에 대한 이와 같은 프로빙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참가자들이 의문을 가진 것은 유무조사 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금액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문항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파생된 결과로 추정된다.
 - 25) B형의 미기입 방식을 조사 필요성 측면에서 우려한 경우는 A형의 일부 참가자들과 동일하게 해당 항목은 응답하지 않아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13〉 조사표 이전 부분과 일관성 인식 현황

참가자 ¹⁾	유형 ²⁾	응답 방식 이해 ³⁾	조사표 이전			조사표 개선			
			전반적인 생각	차이 인식	추가 의견	전반적인 생각	차이 인식	추가 의견	
2	A	택일	▪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B/ 기입		다르지 않다	▪ 조사방식의 일환
4	A	택일	▪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B/ 기입		다르지 않다	
5	A	택일		다르지 않다	▪ 응답용이	B/ 기입		다르지 않다	
6	A	택일	▪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 응답용이	B/ 선택	▪ 조사방식의 일환: 선택 ▪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 조사방식의 일환
7	A	택일	▪ 「있음», 「없음」과 금액 기입 칸 혼재 의아	다르다	▪ 「있음», 「없음」과 금액 기입 칸 혼재 의아 ▪ 응답용이	B/ 기입	▪ 조사방식의 일환: 기입	다르지 않다	
13	A	택일	▪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 앞에도 「있음», 「없음」 선택 항목 제시	B/ 미기입		다르다	▪ 미기입 방식 도입 → 미기입 칸 제시 의문
14	A	-	▪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 조사방식의 일환	B/ 선택	▪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15	A	택일	▪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 응답용이	B/ 기입	▪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다	▪ 미기입 방식 도입 → 미기입 칸 제시 의문
16	A	택일	▪ 응답용이	다르다	▪ 앞에도 「있음», 「없음」 선택 항목 제시되었으나, 후속질문 유무 차이 ▪ 응답용이	B/ 미기입	▪ 조사방식의 일환: 미기입	다르다	▪ 미기입 방식 도입
17	A	택일	▪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 앞에도 「있음», 「없음」	B/ 미기입		다르다	

참가자 ¹⁾	유형 ²⁾	응답 방식 이해 ³⁾	전반적인 생각	차이 인식	추가 의견	유형 ²⁾	응답 방식 이해 ³⁾	전반적인 생각	차이 인식	추가 의견
			일환	않다	선택 항목 제시					
20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 조사결과 유용성 의문 → 보여주기 조사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 조사로 변환되어, 참고자료 같은 느낌 	B/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기입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입 방식 도입
24	A	「있음」만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26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결과의 정확성 확신 증가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선택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28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30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B/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입 방식 도입
1	A/	택일		-	-	B	기입		-	-
3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B	미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8	A/	「있음」만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B	기입		다르지 않다	
9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B	미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미기입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10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B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칸 강조 	다르지 않다	
11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B	미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12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칸 	다르지	

참가자 ¹⁾	유형 ²⁾	응답 방식 이해 ³⁾	전반적인 생각	차이 인식	추가 의견	유형 ²⁾	응답 방식 이해 ³⁾	전반적인 생각	차이 인식	추가 의견
			일환	없다				강조	없다	
18	A/	「있음」만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형태 변경 느낌 (금액 → 유무 조사)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19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 조사 결과의 유용성 의문 응답용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에도 「있음», 「없음」 선택 항목 제시되었으나, 후속질문 유무 차이 → 유무 조사 결과의 유용성 의문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칸 강조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21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응답용이 	B	미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칸 강조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22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결과 정확성 확신 증가 	다르지 않다		B	미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미기입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입 방식 도입
23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에도 「있음», 「없음」 선택 항목 제시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칸 강조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입 방식 도입 응답용이
25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색 칸 강조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입 방식 도입 → 미기입 방식 우려 (이유: 조사 필요성)
27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용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부분의 금액, 횟수 기입 방식과 차이 	B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선택 	다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응답용이
29	A/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응답용이 	다르지 않다		B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식의 일환: 기입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입 방식 도입 → 미기입 방식 부적절 (이유: 조사 필요성)

주: 1) 인지면접 진행 중 2번 참가자부터 프로빙이 추가되어 총 29명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2) 첫 번째 작성한 조사표와 구분하기 위해 두 번째 작성한 조사표 유형은 ‘/’ 기호를 추가하였다.

3) 응답방식 이해상태는 조사표 23p. 응답 현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다.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

조사표 변경(안)(A형, B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응답부담감,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검토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조사표(안) 유형별로 각각 응답방식 변경 항목(9개)을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프로빙하였다.²⁶⁾²⁷⁾ 7점 척도는 0에서 6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구성되었으며, 양극단의 0에는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6에는 ‘거부감을 매우 느낀다’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조사표(안) 유형별로 참가자가 평가한 거부감 점수와 이에 대한 의견을 <표 16>에 정리하였다.²⁸⁾

조사표 변경(안) 유형에 관계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A형: 1.3, B형: 1.4)<표 14>.²⁹⁾ 조사표 작성 순서를 고려하여도 거부감 평균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A형: 1.2, A/형: 1.4 // B형: 1.6, B/형: 1.3).

조사표 변경(안) 각각에 대해 행정자료 활용 통계 작성에 대한 거부감 점수 평가 후 참가자 의견을 프로빙하였다. 참가자 의견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표 15>와 같다. 행정자료 활용에 대해 프로빙한 28명 중 17명이 이의 제기 없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17/28명). 이 중 6명은 수용적인

<표 14> 조사표 변경(안) 행정자료 활용 거부감

	A형		B형	
	A	A/	B	B/
평균	1.2	1.4	1.6	1.3
	1.3		1.4	

주: 1) 첫 번째 작성한 조사표와 구분하기 위해 두 번째 작성한 조사표 유형은 ‘/’ 기호를 추가하였다.

<표 15>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의견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의견	세분화	참가자 수
	수용 (17/28명)	
	수용	11/17명
부정 (11/28명)	부정	8/11명
	부정+긍정	3/11명

26) 인지면접 진행 중 3번 참가자부터 행정자료 활용 거부감에 대한 프로빙이 추가되어 총 28명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27) 참가자에게 응답방식 변경과 행정자료 활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프로빙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자 대다수가 지침의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통해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응답 중에는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28) <표 16>에서 거부감 평가 점수는 조사표(안) 유형별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은 프로빙 결과 유형 간 구분 없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확인되어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표 16>에서 참가자 의견은 면담 과정에서 거부감 점수 부여 후 부정 또는 긍정적인 반응을 명백하게 밝힌 내용을 기술하였다.

29) 전체 참가자 중 4점 이상을 응답한 경우는 2명이었다(A형 참가자 17, B형 참가자 17, 23).

태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하였다(6/17명). 한편 전체 28명 중 나머지 11명은 행정자료 활용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11/28명).³⁰⁾ 이러한 부정 의견자 중 다수는 7점 척도로 평가한 거부감이 3점 이하(9/11명)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포착됨을 확인하였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에 대한 참가자 의견의 성향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적인 태도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괜찮다는 의견이었다.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우려로, 이때 우려되는 상황은 개인정보 유출/노출/이용(악용)/보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개인정보에 관한 우려는 특히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등 정부보조금 수급자,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정보에 민감한 경우 클 것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행정자료 활용에 관해 응답자 개별적인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조사표(안)은 응답방식이 변경된 조사항목 위에 행정자료 활용 문항임을 안내한 지침을 통해 조사 진행 중 일괄 통보하는 방법으로, 참가자가 제시한 개별적인 사전 설명과 동의와는 차이가 있다.

(참가자 17: 거부감 점수 A형, B형 5, 부정 의견)

참가자 - 그렇죠.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이게 돈에 관계되고 그 전에 질문, 처음에 왔을 때 질문들은 뭐 오히려 그게 더 프라버시하다 그럴까? 솔직히 그게 더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거는 거리낌이 없어 이상하게. 요즘 세상이 바뀌다 보니 그래서인지 몰라도 까짓것 이 정도 뭐 해도 뭐. 근데 확실히 이게 돈에 관계된 거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뭐랄까? 왜냐면 괜히 이거 적으면 물론 앞에 이거 다 비밀로 한다 해놓고 했지만 어떻게 악용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괜히 막연히 그런 생각이... 약간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수급자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많이 그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참가자 19³¹⁾: 거부감 점수 A형, B형 0, 부정 의견)

참가자 -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없어도 되는 항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민감한 사람들은 또 자기 어쨌든 그것도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조사 때문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가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20: 거부감 점수 A형, B형 2, 부정 의견)

참가자 - 그게 꼭 필요한지가 설명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전 동의, 설명,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

30) 부정적인 의견 제시자 중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언급한 사례도 있다(3/11명, 참가자 9, 19, 27).

31) 해당 참가자는 부정적인 의견과 상반되는 긍정적인 의견이 복합되어 있다.

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원 - 내 행정정보를 통계 작성에 사용할 때는 어떤 나의 사전 동의나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시지요?

참가자 - 네. (중략) 거부감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저도 아직 거부감이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한 1, 2 밖에 되지 않은 편이기는 한데 이게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가 조금 조금씩 1, 2, 3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거 같거든요 저는.

(참가자 23: 거부감 점수 A형 3, B형 4, 부정 의견)

참가자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 같은 게, 왜냐면 통계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오는 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걸 해버리면 그냥 국가에서 출처 이렇게 통계청 해 놓고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고. 근데 개인이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에 있어서 본인이 참여를 했다 보니까 물론 신빙성이나 이런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본인이 너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면 작성할 때 아, 저는 그냥 이거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율이 좀 더 포함될 수 있으니까, 후자보다는 전자가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덜 하지 않을까

한편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통계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 대체로 인해 응답자 부담이 감소하고 조사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외에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행정자료 활용은 정부기관의 책무라는 의견도 있었다.

< 요약 >

▶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

- A형, B형 조사표(안) 모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 평균 낮음
- 행정자료 활용에 대해 참가자 다수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사전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됨

<표 16>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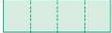
참가자 ¹⁾	유형 ²⁾	거부감	유형 ²⁾	거부감	추가 의견 ³⁾	
					부정적	긍정적
4	A	0	B/	0		
5	A	0	B/	0		
6	A	3	B/	3		

7	A	2	B/	2	▪ 개인정보 유출 우려	
13	A	0	B/	0		▪ 응답자 부담 감소
14	A	0	B/	0		
15	A	0	B/	0		▪ 통계 정확성 제고
16	A	2	B/	2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본인은 임금근로자라 상관없으나, 자영업자 우려 예상	
17	A	5	B/	5	▪ 돈 관련 사항이라 악용 우려 - 본인 같은 수급자는 우려 클 것	
20	A	2	B/	2	▪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개별 사전 설명과 동의 필요 - 앞으로 거부감 점차 더 증가 예상	
24	A	0	B/	1		▪ 통계 정확성 제고
26	A	1	B/	2		▪ 통계 정확성 제고 ▪ 응답자 부담 감소
28	A	1	B/	1		
30	A	1	B/	0		
3	A/	2	B	2		▪ 통계 정확성 제고 ▪ 조사비용 감소
8	A/	0	B	0		
9	A/	3	B	3	▪ 개인정보 이용 우려	▪ 조사 편의 증대
10	A/	3	B	3	▪ 별로임	
11	A/	3	B	3		
12	A/	0	B	0		
18	A/	3	B	3	▪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개별 사전 동의 또는 선택 필요	
19	A/	0	B	0	▪ 개인정보 보호 우려 - 본인은 상관없으나, 민감한 사람 있을 것	▪ 통계 정확성 제고
21	A/	2	B	2	▪ 개인정보 노출 우려	
22	A/	0	B	0		▪ 통계 정확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통계 작성은 책무
23	A/	3	B	4	▪ 행정자료 활용은 개인의 거부권이 없어, 조사에 비해 자율성 부재 ▪ 사람, 경제적 수준에 따라 거부감 정도 달라질 것	
25	A/	0	B	0		
27	A/	1	B	2	▪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개별 사전 설명과 동의 필요 - (사전 설명/동의 불가능하면) 개인식별 정보(예. 이름) 제외한 행정자료 제공 또는 충분한 비밀보장 요구	▪ 통계 정확성 제고
29	A/	0	B	0		

- 주: 1) 인지면접 진행 중 3번 참가자부터 프로빙이 추가되어 총 28명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2) 처음 작성한 조사표와 구분하기 위해 두 번째 작성한 조사표 유형은 ‘/’ 기호를 추가하였다.
 3) 면담 과정에서 거부감 점수 부여 후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반응을 명백하게 밝힌 참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4장 종합논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 분석, 재정 및 복지 정책과 연구에 활용되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이다.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응답거부나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추진해왔고, 소득, 비소비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대체·보완한 결과로 작성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조사 기반으로 구성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에서 향후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지출 부문 항목의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조사 담당부서에서 두 가지 조사표(안)(A형, B형)을 제공하였는데, 조사표(안)은 소득과 지출 부문에서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9개 조사항목³²⁾의 응답방식을 변경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A형(유무질문)은 유무를 조사하는 응답항목(① 있음 ② 없음)을 제시하였고, B형(음영처리)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한 응답 칸( 만원)을 제시하였다. 두 조사표(안)(A형, B형)에서 응답방식을 변경한 항목 윗부분에 신규 응답방식에 관한 지침을 추가하였는데, 해당 지침은 ‘행정자료 활용 문항’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응답방식이 변경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응답자 대상 인지면접을 실시하였다. 인지면접은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두 유형의 조사표(안)을 모두 작성한 후, 면접원과 일대일로 심층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지면접에 참가한 사람은 총 30명이었으며, 두 유형의 조사표(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과정을 이해하고 주관적인 인식을 탐색하였다.

■ 조사표 응답과정: 응답방식 및 행정자료 활용 이해

응답방식 이해: B형은 응답방식 이해도 낮음, 지침 도움 없이 이해 가능한 A형 적절

조사표(안) 유형(A형, B형)에 따라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상태를 파악하고, 지침 인지와 응답방식 이해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A형 조사표(안)은 인지면접 참가자

32) 문30의 ‘④ 공적 이전소득’ 항목 내 6개 세부 항목(① 공적연금, ② 기초연금, ③ 양육수당, ④ 장애수당,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문31의 ‘① 세금’ 내 ‘① 소득세’ 및 ‘② 공적연금·사회보험료’ 내 2개 세부 항목(① 국민연금 기여금, ② 기타연금 기여금)

대다수가 「① 있음」, 「② 없음」 항목 중 택일하는 방식을 이해했고(이해: 26/30명), 지침을 읽지 않아도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반면 B형 조사표(안)은 초록색 음영 칸에 기입하지 않는 방식을 이해 못하고 다른 방식(필수 기입, 선택 기입)으로 응답한 참가자 수가 많았으며(이해 못함: 22/30명), 지침을 읽어도 응답방식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B형은 응답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제시한 신규 응답방식에 관한 지침의 안내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응답방식 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측면에서 A형이 B형에 비해 새로운 응답방식을 지침의 도움 없이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므로 조사표 재설계 방안으로 적절해 보인다.

행정자료 활용 이해: 지침의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 이해 오류 빈번, 보완 필요

지침의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에 대한 이해상태를 탐색한 결과, 조사표(안) 유형(A형, B형)에 관계없이 참가자 대다수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이해 못함: 24/26명). 다수는 조사결과가 행정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문항으로 잘못 이해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 오류에 따라 해당 문구를 통해 응답방식 변경 원인을 설명하려는 목적은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는 관련 분야 종사자는 익숙하나, 일반 응답자는 평소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해당 문구가 당초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 조사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응답부담감, 일관성, 거부감

응답부담감: A형, B형에 비해 2019년 기존 조사표의 응답부담감 가장 높음, 1순위 기존 조사표, 2순위 B형, 3순위 A형인 경우 가장 많음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 변경(안)(A형, B형)과 2019년 조사에 사용한 변경 전 기존 조사표의 응답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 대다수가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기존 조사표를 응답부담감이 가장 높은 1순위로 평가하여(기존 1순위: 27/30명), 조사표(안) 유형에 관계없이 응답방식 변경 시 기존 조사표에 비해 응답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순위가 기존 조사표이고, 2순위 B형, 3순위 A형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21/30명). B형은 초록색 음영 칸에는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무를 선택하는 A형에 비해 응답부담감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참가자들은 B형은 A형에 비해 초록색 칸을 통해 응답 불필요를 직관적으로 이해 못하고, 지침을 읽고 인지해내야

하는 부담감을 언급했다. 또한 B형의 ‘초록색’ 칸은 다른 흰 칸과 대비되고, 단위(‘만원’)가 명시된 네모 ‘칸’은 금액 기입의 압박감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조사표(안) 유형(A형, B형) 각각을 7점 척도³³⁾로 평가한 절대적인 응답부담감은 두 유형 모두 1.8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표 간 상대적인 응답부담감 검토 결과와 종합하면, A형과 B형 모두 절대적인 응답부담감은 높지 않으나, A형이 B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표 재설계 방안으로 적절해 보인다.

일관성: A형, B형 모두 조사표 이전과 차이를 인식하고 문제화될 가능성 낮아 보임

조사표(안) 유형별(A형, B형)로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동 조사표 이전 부분과 비교하여 차이를 느끼는지, 다시 말해 일관성 인식 여부를 검토하였다. 인지면접 참가자 대다수는 A형과 B형을 작성할 때 응답방식 변경사항을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조사방식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⁴⁾ 또한 면담 중 A형, B형 응답방식 변경사항과 조사표 이전 부분 간 차이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빙 질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참가자 수가 ‘다르다’는 경우보다 많았다(‘다르지 않다’ 응답 A형: 22/29명, B형: 19/29명). ‘다르다’고 응답한 참가자 중 일부는 차이를 인식하나 응답방식 변경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일부는 변경사항에 의문을 표했다. 정리하면, A형과 B형 모두 응답방식 변경에 대해 동 조사표 이전 부분과 차이를 인식하고 문제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측면에서 두 유형의 조사표(안) 모두 재설계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

거부감: A형, B형 모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해 수용적이나, 부정적인 의견 일부 존재

조사표(안)(A형, B형)의 변경 항목(9개)을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7점 척도³⁵⁾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프로빙하였다.³⁶⁾ 그 결과, A형과 B형 모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A형: 1.3, B형: 1.4). 행정

33) 7점 척도는 0에서 6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구성되었으며 0에는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6에는 ‘부담감을 매우 느꼈다’는 문구가 제시되었다.

34) 이 밖에 A형의 유무 택일 방식은 B형에 비해 응답하기 쉽다는 의견이 많이 언급되었다.

35) 7점 척도는 0에서 6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구성되었으며, 0에는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6에는 ‘거부감을 매우 느낀다’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36) 참가자에게 응답방식 변경과 행정자료 활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프로빙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자 대다수가 지침의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통해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응답 중에는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자료 활용에 대한 참가자 의견을 살펴보면 다수가 수용적이고(17/28명), 이 중 일부는 통계 정확성 제고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11/28명). A형과 B형은 유형에 관계없이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나, 거부감이 크지 않은 점에서 조사표 재설계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방식 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응답부담감 감소 측면에서 A형 조사표(안)이 B형에 비해 재설계 방안으로 적절해 보인다. 조사표 이전 부분과의 일관성과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거부감은 조사표(안) 유형 간 뚜렷한 차이가 없고, 두 유형 모두 조사표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유형의 조사표(안) 지침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행정자료 활용 문항’ 문구는 이해도가 낮아, 응답방식이 변경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조사표(안)에 대한 응답과정과 주관적인 인식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조사원 면접 상황에서는 자기기입식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기입식에서 응답방식과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안내를 포함한 지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조사원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응답하지 않는 방식을 자각할 필요 없이 조사원이 건너뛰어 진행하므로 B형의 응답 부담감이 유무를 조사하는 A형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행정자료 대체 항목을 재설계한 두 유형의 조사표(안)에 대해 조사원의 도움이 차단된 자기기입식 상황에서 응답자의 반응을 비교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박선희 · 박주언(2018). 2020 인구주택총조사 2차 시험조사표 검토: 인지면접. 통계개발원.
- 통계청(2018a).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 보고서.
- 통계청(2018b).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비소비지출 통계 변경사항.
- 통계청(2019).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 Willis, G. B.(2005).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집필진

- 박주언(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연구보고서 2019-16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소득 및 지출 부문 인지면접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